

일본 안에서 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생각



劉暢(LIU Chang, 리우 창)

일본 와세다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조교수
와세다대학교 체육학 박사
무도론 전공
chch89@hotmail.com

역(정경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국가대표밀착지원팀 분석연구원
와세다대학교 체육학 박사

1896년 제1회 그리스 근대 올림픽대회가 개최된 이래 오늘날까지 125년간 인류는 정치 분쟁, 경제 위기, 바이러스 전파, 전쟁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 왔지만, 이러한 중에도 올림픽대회는 단 3차례(제1차 세계대전 중 1916년, 제2차 세계대전 중 1940, 1944년)만 중지되며 그 맥을 이어왔다. 이처럼 올림픽대회는 올림픽 정신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 및 현장에 의해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 11일 세계 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 후, 같은 해 3월 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담 논의 결과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 결정되었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23일 연일 계속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도쿄를 포함한 4개 도부현에 세 번



출처: shutterstock

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이미 1년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이하 도쿄올림픽)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WHO의 팬데믹 발령과 도쿄올림픽의 연기 결정을 경계로 그 전후에 있어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팬데믹 이전의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제125차 IOC 총회에서는 도쿄를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NHK 방송문화연구소(2016~2019)가 주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관심이 항상 80% 내외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최 1년 전인 2020년에는 평소 스포츠를 잘 접하지 않던 사람들도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림1>에서 도쿄올림픽이 「기대된다」와 「평상시 스포츠를 「보거나 · 듣는」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평상시 스포츠를 시청하고 있는 비율은 낮지만,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 이하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젊은층의 여성에게 있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평소 스포츠에 대한 관심보다 특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20년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에 대한 기대와 의식, NHK 방송 연구와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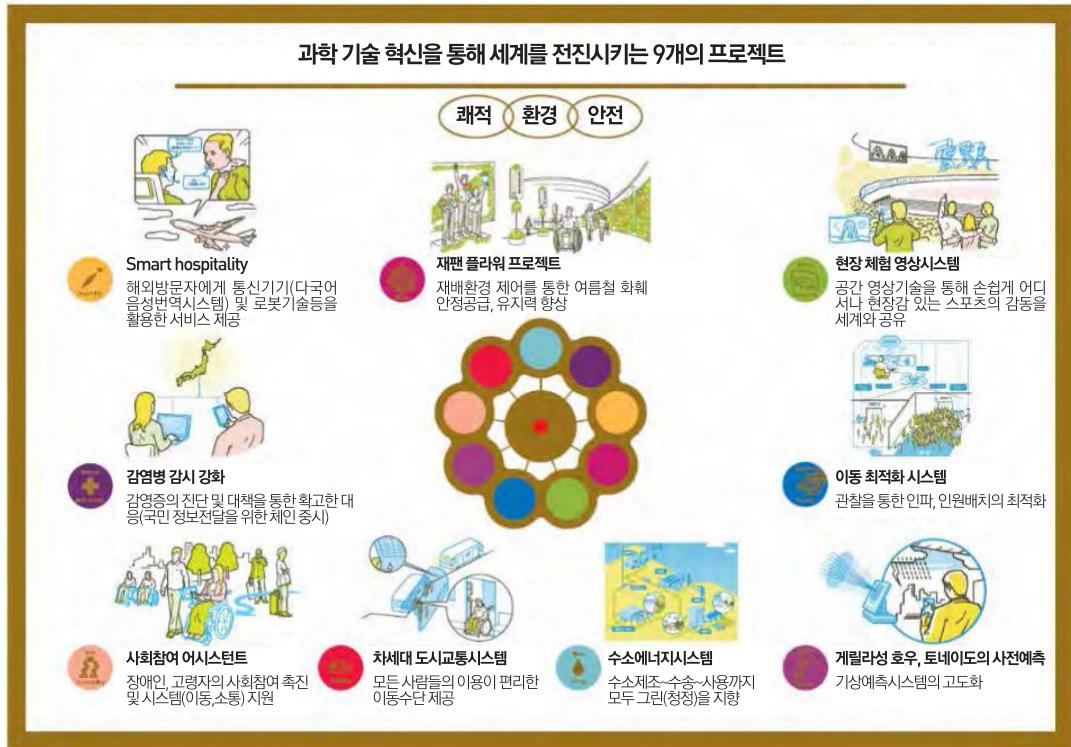
도쿄올림픽의 세 가지 관전포인트

도쿄올림픽에서 경기 내용이나 출전 선수의 활약 등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이외에도 테크놀로지, 문화융합, 새로운 경기종목이라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공한다.

① 도쿄올림픽 × 테크놀로지

도쿄올림픽에서는 대회 참가자 및 전세계 여행자의 만족도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테크놀로지의 도입 ·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회 진행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일본 내각부는 도쿄올림픽을 향한 과학기술 혁신(innovation) 프로젝트 9개를 설계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현장 체험을 제공하는 영상 시스템 개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다언어 교류 시스템의 실현, 관람자의 이동 · 인원 배치의 최적화 · 효율화를 보장하는 시스템, 고령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서포트 시스템 등 도쿄올림픽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수소 에너지 시스템, 감염증 대책 강화, 악천후 사전 예측,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 구축 등 도쿄올림픽 이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고 한다.

9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장 체험 영상 시스템이다. 이 프로젝트는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장 내에서 입체 영상을 비추거나 거리의 빌딩에 시트 디스플레이를 부착하여 고정밀 옥외 퍼블릭 뷰잉(대형 스크린을 통한 관전)을 실현하거나, 한층 더하여 티켓을 겸하는 전자종이에 경기 상황이나 선수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자들에게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전 체험을 제공한다.



<그림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이용한 9개 프로젝트(일본내각부 홈페이지)

② 도쿄올림픽 × 문화융합

도쿄올림픽에서는 213개국·지역·단체를 대상으로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 제작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기모노 무늬에는 각국·지역의 역사, 문화, 풍경이 반영되어 있고, 각각의 디자인은 대사관 등의 청취조사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별 학습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제작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위해 맞춤 제작한 기모노 디자인은 한복(치마저고리)을 착안하여 골격으로 삼았다. 옷자락과 옷깃에 한국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접목하고 무궁화와 까치, 전통적인 꽃 모양 무늬를 전체적으로 장식하여 창덕궁과 수원 화성을 떠올리게 하였다. 가령 “화려함을 자아내기 위해 금박을 많이 사용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와 현대적인 색채를 조합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기모노의 피는 고려의 도자기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을 주제로 하여 치마저고리에는 녹색과 금박, 청록색 펄박을 사용하여 직접 수공예로 제작 되었다.

올림픽 현장에서 “올림피즘은 스포츠를 문화, 교육과 융합시켜 삶의 창조를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었듯이 올림픽은 각국의 문화가 융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선수가 같은 경기장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바로 'United by Emotion'이라는 도쿄올림픽의 모토처럼 문화융합에 감동을 느끼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한국의 문화를 융합한 기모노(일반사단법인 이매진 원월드HP)

③ 도쿄올림픽 × 새로 채택된 경기

도쿄올림픽에서는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등 5개의 종목이 추가되었고 패럴림픽에서는 태권도와 배드민턴 2개 종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경기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종목도 있다(농구 3x3, 자전거 경기 BMX 프리스타일자전거 경기 H1 타임 트라이얼).

이 종목들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가라테와 태권도이다. 가라테는 일본을 대표하는 무예 중 하나로 태권도 및 중국 무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도쿄올림픽에서 가라테는 「카타(예:태권도의 품새형태)」와 「쿠미테(태권도의 겨루기)」 두 종목으로 나뉘어 선보인다. 「카타」에서는 가상의 상대방이 있음을 가정하고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조합한 연무를 실시하여 기술의 정확함이나 힘의 세기, 속도, 리듬, 균형, 완성도를 채점하는 경기이다. 한편, 「쿠미테」는 대전 상대와 1대1로 규칙 내 정해진 부위를 찌르기·차기·치기의 기술을 얼마나 신속성, 정확성, 강도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그리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지적·신경·시각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품새(형), 상지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겨루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태권도가 패럴림픽에 채택된 것은 그 종목의 대중성과 다양성이 인정되었음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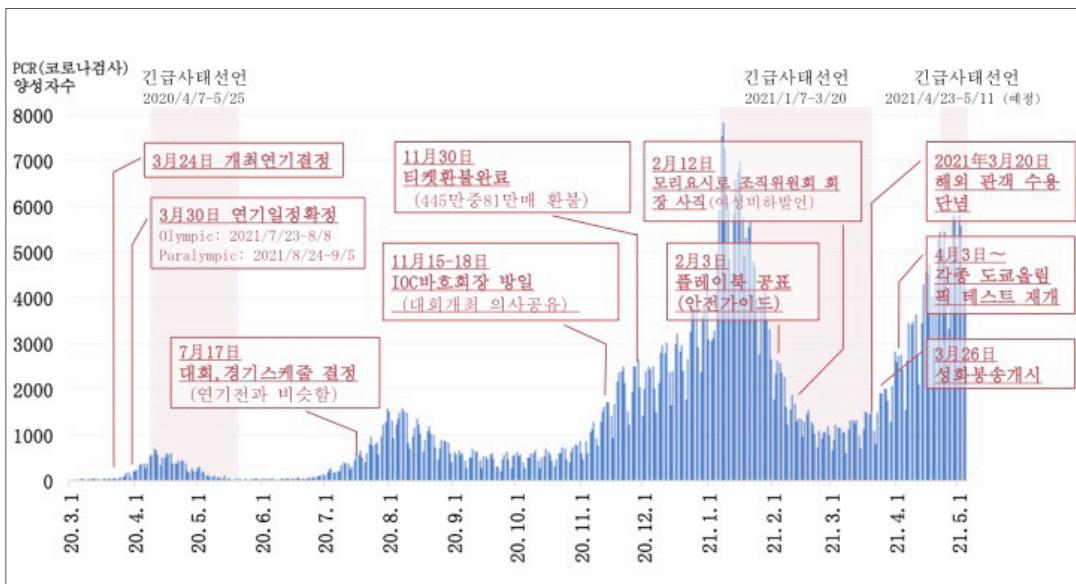
다만 오늘날 스포츠계를 조감해볼 때, 상대적으로 서양의 지배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 까지 하계 올림픽의 약 50여 개 종목 중 비서양 기원의 것은 태권도(한국 기원)와 유도(일본 기원) 두 가

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국제적인 보편성에 동화되어 자국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감소시킨 채 올림픽 종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서양의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진다. 이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개최국인 중국이 자국 무술인 태극권을 공식종목에 포함 시키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지속적인 압력을 넣고도 채택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선보이는 가라테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낙선했다는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깊은 문화적 유대를 갖고 동아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코로나19,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와 조직위원회의 대응

이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정부에서는 2021년 4월 23일 도쿄를 포함한 4개 도부현에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였다(5월 11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일본 정부로부터 발령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은 결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 현지에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도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해 서서히 식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의 시사통신사가 올해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쿄올림픽에 대해 「중지해야 한다」와 「더 연기해야 한다」에 회답한 일본인은 65.4%에 이르렀고, 동일 항목 조사를 미국, 러시아, 중



<그림 4> 일본의 감염 상황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주요 대처

국, 한국, 태국 등 5개국의 국민에게 실시했을 때, 그 비율은 83.5%에 이르렀다. 왜 여론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도 국제적인 폐가 이벤트에 대해 사람들은 개최 중의 테러 등 대사건의 발생, 주최 도시의 교통 정체나 치안 악화 등 부정적 영향에 따른 것 같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상업 올림픽의 원점으로 불리는 로스앤젤레스 대회(1984년) 이후 올림픽에서 얻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며, 정부 및 많은 외신들도 도쿄올림픽이 가져올 경제 효과를 꾸준히 호소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회복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나 평화에의 공헌 등 올림픽 정신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서히 올림픽의 개최의 필요성에 둔감해지게 되었다.

필자가 작성한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안심·안전한 대회의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록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4>는 최근 1년간 일본 내 코로나19의 감염 상황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주된 대처를 나타낸 것이다. 대회 연기가 결정된 후 조직위는 이미 판매한 티켓 환불, 안전 가이드(플레이북) 만들기, 해외 관객 수용 금지, 관람객 성화 봉송 등 다양한 대응수단을 마련했다. 그 결과 도쿄올림픽은 서서히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3일부터 도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및 경기 운영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READY STEADY TOKYO' 테스트 이벤트를 1년 만에 재개하였고, 5월 말까지 럭비, 배구, 스케이트보드, 패럴림픽 수영·육상 경기 등 18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쿄올림픽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는 참가국 및 선수들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코로나19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재동을 걸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분단된 사회, 각 국가의 대립, 전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전염병을 극복해나가며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우리가 함께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하나로 화합이 되어야 한다. 올림픽은 언어와 문화, 인종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하는 힘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125년간 인류가 올림픽을 이어온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상황에서의 도쿄올림픽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를 올림픽 정신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입각하여 풀어내는 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진정한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NHK放送文化研究所(NHK방송문화연구소)(2020).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への期待と意識(2020년 도쿄 올림픽·페럴림픽에 대한 기대와 의식).放送研究と調査(방송연구와 조사), 70(1), 2–25

일본내각부 HP(<https://www8.cao.go.jp/cstp/tyousakai/olyparatf/index.html>)

한국의 문화를 융합한 기모노(일반사단법인 이매진 월월드HP) <https://www.piow.jp>